“남북불교교류에 천태종 역량 쏟겠다”

천태종 제18대 총무원장 문덕 스님 취임 기자간담회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의천대각국사 다례재 비롯
북한불교와 사업 적극 논의
종무행정 제도 점검해 개선
“시대흐름 맞도록 변화 주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민간교류가 단절돼 천태종은 최근 몇 년간 개성 영통사에서 의천대각국사 다례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오고, 관계 개선을 위한 훈풍이 불고 있어 남북불교교류 재개를 기대합니다. 종교차원서 교류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종단 역량을 쏟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1일 천태종 제18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문덕 스님〈사진〉이 최근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불교교류를 바탕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님은 4월 13일 서울 관문사에서 총무원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 운영기조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천태종은 개성 영통사를 복원하고 매년 영통사서 한국천태종 개창조인 의천대각국사 다례재를 조선불교도연맹과 함께 봉행해왔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교류가 단절됐다. 다행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정상회담까지 앞두고 있어 천태종은 민간교류로 확대되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간교류가 개방되면 의천국사 다례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남북불교교류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문덕 스님은 “아직은 이르지만 남북정상 간의 대화가 잘 마무리되고, 민간교류의 길이 열리면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천태종은 불교교류의 기회가 확장되는 대로 추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취임법회에서 시대적 가치에 따른 행복 구현을 포부로 밝힌 문덕 스님은 이날 ‘수행종풍의 내실화’를 운영기조로 제시했다. 천태종 3대 지표인 애국불교 · 대중불교 · 생활불교를 받들며 종단 수행종풍인 ‘주경야선(晝耕夜禪)’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이를 위해 문덕 스님은 현재 종단 종무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개선책을 세울 계획이다.

문덕 스님은 “천태종은 타종단과 달리 사찰과 종단 운영에 재가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 덕분에 스님이 많지 않아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만큼 잘 다져진 종무행정 제도를 시행중”이라면서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 부족한 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대에 뒤처진 부분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덕 스님은 현재 서울 명락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센터 불사가 보류상태임을 알리고, 당분간 세종시 종교부지에 세울 천태종 전통문화유산전승센터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끝으로 문덕 스님은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불자와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로 “우리나라는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경제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지만 마음은 가난한 시대가 됐다”며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수행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불자든 비불자든 모든 사람은 진리 아래 살기 때문에 지혜의 마음을 밝혀 경제발전 만큼 넉넉한 마음을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고종 종회, 부채 변제위원회 구성키로

제134회 임시중앙종회서 결의

태고종이 종단 부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종회 차원의 종단 채무변제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는 4월 19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34회 임시종회를 열고 종단 부채와 관련해 종회 차원에서 종단 채무 변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것은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종회에서는 호법원 부원장에 관정 스님, 원로의원에 운경 스님, 혜운 스님이 선출됐다. 또 옥산 스님과 지륜 스님, 정암 스님, 선종 스님, 대원 스님 등 5명이 호법위원으로 임명동의됐다. 하지만 2017년도 태고종 세입 · 세출 결산안은 부결됐다.

한편, 이날 종회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종무방침연술을 통해 동방불교대학 정상화를 비롯해 인도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종단 교류의 폭을 넓히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비롯한 국내 단체와의 관계 개선 및 위상제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학인과 소통하는 교수법 배운다

조계종 교육원, 5월 3~4일 상주 교수 연찬회

전법교화 역량을 향상시키는 승가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사찰 승가대학 상주 교수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법 강연이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5월 3~4일 1박2일간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사찰 승가대학 · 대학원 상주 교수 연찬회를 개최한다. ‘학인 스님들과 소통하는 교수방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찬회는 강의와 토론이 함께 진행된다. 강의는 하오선 동국대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가 ‘뇌 기반 소통법’을, 김수영 동국대 교수학습지원센터 연구원이 ‘플립드러닝 교수법’을, 최정현 한글과컴퓨터 이사가 ‘스토리텔링의 이론과 실습’ 등이 이뤄진다.

교육원은 “승가교육 중심에 있는 승가대학 · 대학원 교수 스님들의 상호교류와 효과적인 교수법의 발전방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4월 16일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 영단에 헌화한 뒤 예를 올리고 있다. **사진=조계종 홍보국**

설정 스님, 세월호 4주기 ‘유가족 위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합동분향소를 방문,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유가족 위로에 나섰다.

설정 스님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안산시 화랑유원지를 찾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 자리서 스님은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에 불교계가 힘을 실을 것을 약속했다.

이날 합동분향소에서는 영정과 위패를 이운하기 전,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 원불교 등 4대 종교 기도회가 마련됐다. 불교계는 첫 순서로 참여해 설정 스님이 영단에 헌화와 분향했다. 이어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특히 설정 스님은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과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어 조만간 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미수습자로 남아 있는 다섯 분도 하루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지난 4년간 70여만 명의 추모객이 다녀간 안산 합동분향소는 이날 오후 진행된 정부 합동영결식을 끝으로 철거됐다. 영정과 위패는 유가족들에게 전달됐으며, 화랑유원지 인근에 추모공원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악연 不善의 업을 녹여야 풀린다

아상 다스려 업처를 보면
상생 소통하는 善緣 나와
“손에 손잡고 함께 갑시다”

이것이 인과법칙이고 인연법입니다.

*인연은 전생부터 이어지는 인과관계입니다. 과보에 따라 착한 인연(善緣) 또는 나쁜 인연(惡緣)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만나서 반갑거나 불편하고 싫은 것은 전생인연 때문입니다.

착한 인연은 소중히 잘 가꾸고, 악연은 피하거나 끊으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 그 고리를 풀어야 합니다. 풀리지 않으면 악연의 괴로움은 다음 순간으로 즉시 또 옵니다. 악연은 부채와 같아서 갚아야 없어집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처럼 악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주칩니다. 아상과 집착을 내려놓고 그 업을 소멸해야 악연은 사라집니다.



제목 · 악연-선연 그림 · 조향숙

*부처님은 금강경 제16 능정업장분(能淨業障分)에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금강경을 수지독송 할 때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으면 이는 악도에 떨어져야 할 전생의 죄업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므로 곧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능정업장분의 이 말씀은 당장 여기서 업장을 소멸하는 가르침입니다.

범부 중생에게는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참기 어려운 재앙입니다. 중생은 아상을 가볍게 건드려도 분노합니다.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마음 ‘인욕’으로 업신여김을 대하면 그 공덕으로 내 전생의 업을 녹이는 것입니다. 인욕공양으로 아상을 다스리니 업장이 다스려지고 악연이 풀리는 것이죠.

*업신여김을 당하면 그 업신여김을 거울 삼아 자기를 비춰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나쁜 업을 못보는 사람은 무명 중생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충돌과 저항이 왔을 때 상대방과 똑같이 충돌하면 불행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에’라는 자기 점검을 통해 내 업의 보따리를 보아야 합니다.

업장을 보는 방법이 수행입니다. 업의 끈이 뚝뚝 끊어지는 소리가 날 때까지 절을 하거나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을 해 보세요.

금강경 독송도 참선도 하십시오. 수행으로 업처(業處)를 보면 지극한 마음에서 참회가 나오고 아상이 녹습니다. 발원과 축원이 나오고 상생(相生)하는 마음이 됩니다. ‘함께하자’는 동행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주고 또 줍니다.

상생에서 착한 인연이 나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마음은 빼앗는 마음이며 상극(相剋)하는 마음입니다. 상극의 삶에는 탐욕이 꽉차서 악연(不善)의 씨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속담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가는 동행은 상생이며 화합의 열쇠입니다. 선연이 나오고 악연이 풀어지는 상생의 삶은 소통이며 해탈입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갑시다.

이 말씀은 불법에서 가장 으뜸인 연기(緣起)의 가르침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 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8년 4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